

기린 아이들의 Story

기린 아이들의 추억~

어서와 중학교는 처음이지?

새로운 학생들이 전주기린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안현문 학생이 입학생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습니다.

3학년 선배들은 1학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무대를 보여주었고, 임유빈(1학년)학생은 축하해주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랩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입학생 모두에게 양치도구세트를 선물로 주었고 새로 오신 선생님들께는 화분을 선물하였습니다.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춘계 현장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1학년은 정인승 기념관과 논개 생가지 및 논개사당을 다녀왔고, 2학년은 소충사와 국립임실호국원에 다녀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학교운동장과 강당에서 농구, 짝 피구, 2인 3각 등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었고 스포츠 활동을 하여 건강한 신체와 협동심 등을 길렀습니다.

우승은 1,2,3학년 모두 3반이 차지하였습니다.



학생회 임원 지도력 향상캠프

학생회 임원 지도력 향상 캠프에는 전주기린중학교를 대표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학생회 임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와 옆에 있는 산에서 등산 등과 활동들을 하였고, 부원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2019년 5월 15일(수)에 전주기린중학교 중앙현관에서 스승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선 풍선을 현관 여기저기에 달아서 현관을 꾸몄고, 카네이션을 선생님들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풍선에는 선생님들의 이름과 편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풍선들을 캠페인이 끝난 후 모두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아침밥을 먹어요!



아침밥을 거르는 학생들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와 같은 아침밥 관련 퀴즈들을 맞추면 김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의 우정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회에서 계획하여 단합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대회 안에 있는 게임을 즐기며 더욱 활기차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이 행복한 순간..!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감동받은 순간!

- 1학년: 선생님들이 자유시간줄 때?
- 2학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고민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 고민을 도와줄 때!
- 3학년: 시험성적이 떨어져 속상했을 때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감동받은 순간!

1. 태도가 안 좋은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좋아지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2. 성의 있는 편지를 스승의 날 때 학생들로부터 받을 때!
3. 선생님들이 준비한 수업시간을 학생들이 착실한 대답과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임했을 때!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꼭 건강부터 챙기시고 즐거운
여름방학 보낸 뒤 다시 학교에서 보도록 해요!